

북엑스포아메리카 2007 인협 한국관 조성, 22개 업체 참여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욕의 Jacob Javits Center에서 개최된 북엑스포아메리카 2007(www.bookexpoamerica.com)에 한국관을 조성, 한국의 인쇄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쇄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6만㎡ 규모 2천개사 참가 7만명 방문

1943년 1회 개최 이후 해마다 열리는 북엑스포아메리카는 6만㎡의 전시장에 통상 2천개업체가 참가하고 7만여명의 방문객이 관람하는 미국 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전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일반 출판물은 물론이고 아동·교육물, 오디오·비디오, 지도·지구의, 예술서적, 종교물, 전문·기술·과학물, 심령과학물, 외국어물, 대학출판물 등이 폭넓게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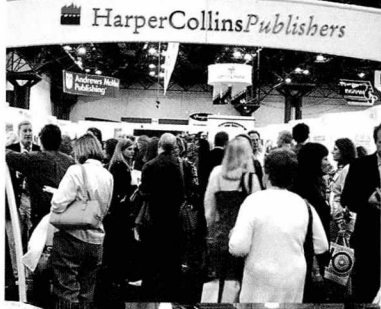
북엑스포아메리카는 각기 다른 교육적 내용, 작가 이벤트, 특수산업을 연계함으로써 각 사업체들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역동적인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전시회의 하나다. 또한 책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출판사, 서점, 도서관 사서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전 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저작권 판매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판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판매로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전시회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5월 30일에는 작가 컨퍼런스,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교육 프로그램,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국제 저작권 센터 회의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고인쇄 시연 · 1천여 인쇄홍보물 전시

한국관은 한국인쇄문화홍보관과 한국인쇄전시관으로 구분, 37.16㎡ 규모로 조성됐다. 한국관 조성의 목표는 세계시장의 중심인 뉴욕에서 개최된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참가, 우리나라 인쇄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쇄상품을 적극 알리고 북미시장 개척의 단초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인쇄업계에서는 직접





인력을 파견해 수출상담 업무를 진행한 대한교과서(주), 청아문화사를 비롯해 20개 업체가 인쇄홍보물 및 브로슈어 등을 전시, 총 22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부스 이름을 Printing Korea로 하여 방문객이 한국의 인쇄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관에 배너 및 패널을 부착,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널리 알렸다. 특히 한국관 내부를 종합전시관 및 개별업체관으로 구분하여 종합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홍보하고 개별업체관에서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인협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및 목활자본 시연 행사를 했으며, 패널을 통해 세계의 인쇄문화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또한 고급인쇄물, 미술인쇄물 등 우리나라가 외국 인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쇄물을 전시하여 수출 상담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인쇄문화홍보관에는 직지(영인본) 하권, 무구정광대다라니경(복제), 직지 금속활자판(복제), 훈민정음 목판(복제), 우리나라 인쇄문화 소개 패널, 한국 인쇄문화 홍보물(영문판), 참여업체 카탈로그 등이 전시됐다. 한국인쇄전시관에는 미술인쇄물, 고급책자, 성경, 사전, 캘린더 등 1천여점의 인쇄물과 참여업체 카탈로그 및 홍보용 책자, 수출 상담에 필요한 특수인쇄물 등이 전시됐다. ↻

